

낙동강 페놀오염, 그 현장을 찾아서

정 홍 식



대구를 비롯한 경남·북 주민 800만명 이상을 불안과 불신으로 얼룩지게 했던 '페놀 식수 오염' 사건은 현상적으로는 정부의 갖가지 '맑은물 공급대책'과 '시민들의 지구노력강구' 등으로 묻혀 잊혀지는 듯하다.

그렇지만 매년 겪는 식수오염 사태('89년 중금속오염, '90년 트리할로메탄, 그리고 올해 페놀 사건등)는 국민들로 하여금 먹는 물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충분히 작용하였다.

이번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 평민당을 비롯한 민간 환경4개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 등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일은 정부나 기업 등의 정책이나 도덕적 양심에 절대로 안심하고 맡길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곧 시민들의 깨어있는 정신으로 공동으로 감시하고 보전하려고 하는 실천적 집단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페놀오염사건과 결부하여 설명해보면, 첫째로, 식수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맨 처음 발견한 것은 폐수나 식수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처나 대구시가 아니고, 한 가 정주부가 물에서 냄새가 몹시 난다고 대구

시에 신고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은 그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행정관서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수돗물에 폐놀 이외에 다른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어도 발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불행히도 이미 피해는 전 지역으로 확산된 후였다.

평소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구미·김천 공단에서는 산업폐수(중금속등을 함유)를 매일같이 낙동강으로 방출하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대구시 다사 정수장에서는 이에 대비한 사전대비가 전혀되어 있지 못했다.(이번 사건도 폐놀과 같은 유해물질이 정수장에 들어왔는지 조차 검사하지 않고, 평소 하는대로 염소소독만하고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했음).

둘째로,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다. 수돗물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폐놀과 염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냄새와 독성이 200배나 강한 클로로 폐놀성분이 수돗물에 들어 있다는 사실) 대구시는 즉각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던가, 비상대처 방법(예를들면 수돗물을 항아리에 받아 솥등을 넣고 하루정도 받아 놓은 후 끓여 마신다)등을 시민들에게 고지했어야 옳았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지 않고 오히려 클로로 폐놀은 인체에 무해하다는등 신문과 방송을 통한 홍보에만 신경을 썼다.

**“낙동강 폐놀오염 사태는
오늘날
우리의 환경오염
실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한
단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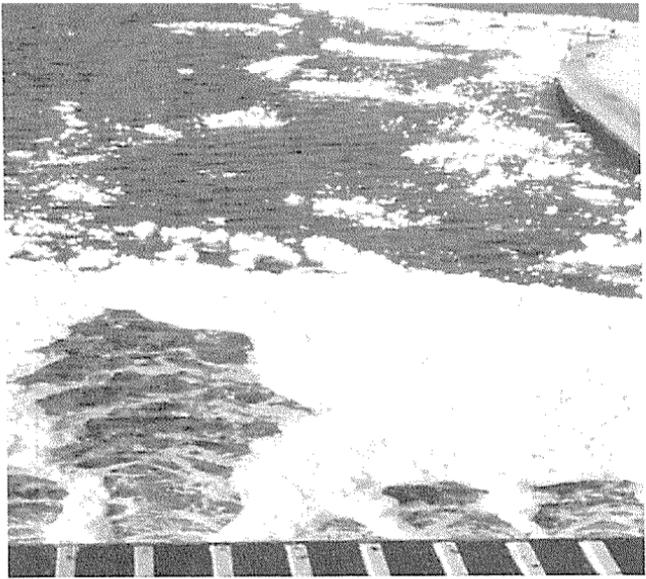
보사부 음용수 관리지침에도 폐놀은 하루 마실수 있는 양이 0.001ppm으로 규정해 놓았고 이에 반해 대구 수돗물에서는 무려 0.03ppm으로 측정되었는데도 말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사회문제화되자 상부에 보고하기에만 급급해서,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금취수장에서는 사건발생 3일후에야 비로서 이사건이 대구시가 아닌 내무부를 통해서 공식전달되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상식인데, 어째서 이사실을 대구시에서는 즉각 부산시에 먼저 알려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평소 행정의 협조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세째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환경 파괴는 아랑곳하지 않는 기업의 비도덕적

환경보전을 근거로 한
개발, 곤충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생태학적 철학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계속
오염에 병들어갈
것이다.



양심을 엿볼 수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비밀 배출구를 통한 페놀폐수의 무단 방류는 차치하고서라도 페놀원액이 다량으로 방출되었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일인 3월 26일 이전에 두산전자(주) 측에서는 발견하고서도 이를 즉각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무마하기에만 전전긍긍했다는 사실이다.

두산전자에서 대구시 다사정수장까지는 페놀이 함유된 낙동강물이 흘러 오는데 1일이 소요되므로 즉각 신고만 했어도 식수오염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충분히 예견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불철저성에서 비롯됐으며, 오늘날 우리의 환경오염 실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한 단면이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건이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모른다. '70년대에 한강에서 등이 굽은 기형어가 발견될 때 이미 그 징후는 시

작됐다. 최근 연세대 의대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태어난 아기의 기형아 출생률이 인구 100명당 4명으로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환경오염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오늘도 매일같이 환경관련 행정부서에서는 환경보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중에는 이미 식상한 정책도 있고, 또 그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경제개발 우선정책, 그로 인한 후유증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 올런지, 앉아서 지켜볼 수 만은 없는 일이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아닌, 환경보전을 근거로한 개발, 곤충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 또한 살아갈 수 없다는 생태학적 철학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사회는 계속 오염에 병들어 갈 것이다. **72**

(필자=녹색의 전화 상담원)